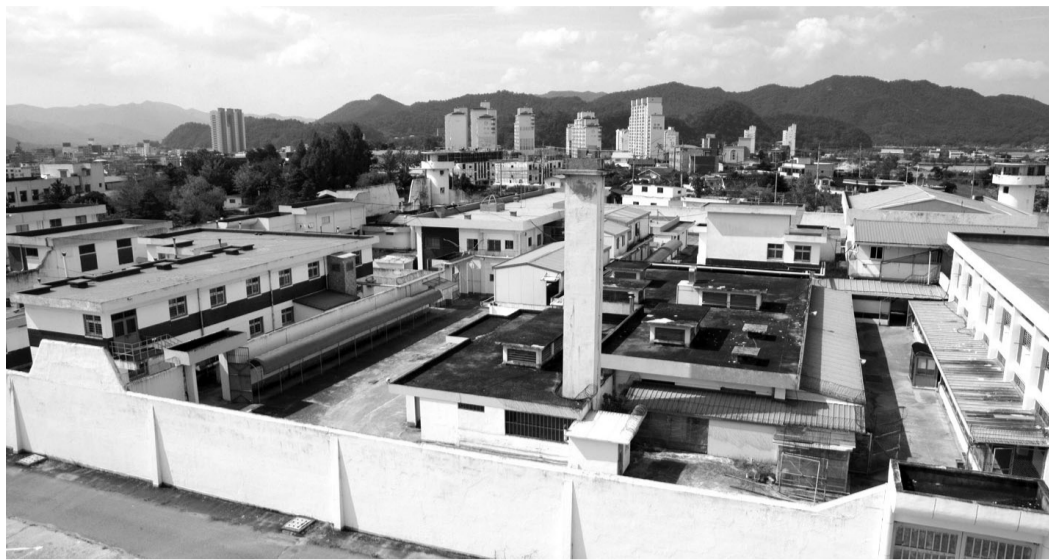


# 옛 장흥교도소 활용 사업 4년째 '지지부진'

2015년 새 청사 지어 이전  
2019년 부지 매입·사업비 확보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가닥  
건물 원형 보존 등 각계 이견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내년까지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건축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옛 장흥교도소 전경. <장흥군 제공>

옛 장흥교도소 활용 사업이 민선 7기를 지나 8기에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 일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하자는 데는 중론이 모였지만 건물 원형 보존과 주민 활용공간을 넓히자는 안을 두고서는 문화예술 단체와 전문가 집단 간 의견이 분분하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옛 장흥교도소가 지난 2015년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에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사업안대로면 내년까지 5년에 걸쳐 토지 3만 9995㎡·건물 8245㎡ 규모 문화예술복합공간이 건립돼야 하지만 민선 7기에 시작한 사업은 8기에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9년 1월 32억 8000만원을 들여 옛 교도소 부지를 사들였고, 지난 2019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3억원을 확보했다. 장흥군은 중앙정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했지만, 공간 활용 방안을 두고 구성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건축 공사도 전기를 제정하지 못하고 지어졌다. 지난해 7월 장흥군은 문화재생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생사업단'을 신설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지역문화진흥위원장을 지낸 김영현(56)씨를 문화재생사업단 총괄기획자로 위촉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와 지역 문화에

건축공사 과업 범위가 애초 12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전시설 제작설치 용역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애초 오는 6월5일 준공 예정이었던 건축 공사(건축·전기·소방·통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준공 기한이 8월 초로 늦춰졌다. 장흥군은 내년 5월까지 전시설 제작과 설치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간 구성을 두고 구성원들 간 '동상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문화인들은 옛 교도소 일원을 예술 전시관과 청소년 체험시설, 특산물 음식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 꾸미자는 의견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교도소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영화 촬영지, 영화제 행사장, 미디어아트 작품, 영화 조형물 등으로 채우자는 의견을 냈다. 주민들은 휴게 공간과 문화예술 전시·공연 공간 등 주민 요구공간을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옛 장흥교도소를 옮기기 전부터 이곳에 대해서는 장흥군청을 아우르는 종합 청사부지와 '이정준 문학관' 건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면밀화된 분석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단체 의견을 듣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며 "우선 내년 준공에 온 힘을 쏟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외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차례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 탄광 사진 공모전' 4월 28일까지 작품 접수

화순군이 올해 문을 닫는 화순 탄광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군은 오는 4월28일까지 '화순 탄광 사진 공모전' 작품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18년 역사를 지닌 화순광업소는 정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올해 폐광을 앞두고 있다. 호남 최대 탄광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화순군은 탄광을 추억할 사진을 공모하기로 했다. 화순광업소 탄광의 풍경과 작업 모습, 인물 등이 담긴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다.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응모할 수 있다. 화순 탄광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담겼거나 활용 가능성이 뛰어난 사진, 보존 상태가 양호한 사진이 공모전 수상작으로 뽑힐 예정이다. 선정 작품은 오는 5월12일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은 오는 9월에 열릴 '화순 탄광 기록 전시회'에 특별 전시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2개 기업과 115억원 규모 투자협약

빛그린·동함평 산단에 공장 신축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가 자인그린바이오·세화이엔지와 투자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이 철제가공 및 친환경 펄프 제조업체와 1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자인그린바이오, 세화이엔지 등 2개 기업과 115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철제가공 생산업체인 세화이엔지는 빛그린산단 부지(6735㎡)에 50억원을 투입, 철제 비계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 동함평산단 입주 기업인 자인그린바이오는 3966㎡ 부지에 65억원 규모의 농업용 친환경 생분해 펄프 탈장지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두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평에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26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린다. 차전놀이 재현 모습. <강진군 제공>

## 강진 전라병영성서 조선 호국 역사 체험하세요

31일부터 사흘간 대면축제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행사

30리 벚꽃길이 펼쳐진 강진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26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린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3월31일-4월2일 전라병영성 축제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4년 만에 대면 개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조선 주막을 배경으로 꾸며진 축제장에서는 조선 의복을 체험하고 병영 난장을 체험하는 등 조선 시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전통놀이와 수문장 교대식, 줄타기, 무예 공연 등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전라병영성은 조선조 500여 년간 전남과 제주도를 포함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였다. 병영성 안의 당시 건물이나 유적은 소실되고 있으나 성곽은 뚜렷이 남아있다. 강진군은 전라병영성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살려 복원하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라병영성 동문

맞은 편에 있는 하멜기념관과 한글골 등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헨드릭 하멜은 병영성에 유배돼 7년간 머물렀다. 병영면 한글골에는 당시에 쌓은 담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강진군 강진군은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 감응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꽃 피는 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된 전라병영성 축제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군, 서울 가락시장 찾아 담양 딸기 유통 활성화 논의

도매법인 간담회 출하량 확대 모색

전국 3대 딸기 주산지 중 하나인 담양군이 자체 개발 딸기 품종을 알리기 위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28일 서울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찾아 담양 딸기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작업 방식과 유통 경로를 일일이 비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통 방법을 고민했다. 이날 점검에는 담양군과 군의회, 지역농협, 도매시장 출하 딸기 작목회원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농협가락공판장 등 주요 도매법인과 간담회를 벌여 담양 딸기의 출하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담양 딸기의 품질 격차를 줄이는 선별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담양군은 전국 3대 딸기 주산지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면적 367ha에서 한 해 1만3206t 생산해 991억



이병노(맨 왼쪽) 담양군수와 담양 딸기 생산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찾아 유통 현장을 살피고 있다. <담양군 제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담양 자체 개발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은 동남아와 미국 등에 수출하며 국내의 고급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장에서 "담양 딸기는 비옥한 토질, 풍부한 일조량과 더불어 영산강 시원의 정경한 자

연환경 아래 재배돼 단단하고 향과 단맛이 뛰어나다"며 "죽향, 메리퀸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과 인력을 지원해 시장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반려동물 등록 하세요 나주시 마리당 3만원 지원



나주시가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며 반려견 등록을 늘릴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5062마리다. 나주시는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시술 때 한 마리당 최대 3만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장치를 통한 동물 등록 비용은 평균 4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지난해(329마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00마리까지 올릴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 시민이면 빛가람동의 지정 동물병원 3곳(가람동물병원·채움동물병원·벤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외장형 장치 부착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는다. 시는 지역 시술 지원 동물병원 3곳을 지정하면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장성군 주민 모임 12곳 참여 '봄봄 프리마켓' 성황리 마감



장성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연 '봄봄 프리마켓'에서 방문객들이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있다.

장성지역 주민활동 모임체 12곳이 참여한 만들 시장 '봄봄 프리마켓'이 최근 홍길동테마파크 어울리라운지와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마를 여행사 '올로와장성'이 기획하고 마련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수공예품을 만들고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 활동 모임체는 옐로우장농, 농부가, 탐바루, 애나드, 피플앤트, 토토마마 등 12곳이다. '옐로우장농'은 3D 펜을 이용한 휴대전화 손걸이 만들기 체험과 백향과정 만들기를 선보였고 '탐바루'는 활칠자를 만날 수 있는 시음회와 황칠 화본 만들기 등을 준비했다. '농부가'가 마련한 손수건·스카프 염색 체험과 '애나드'의 미니 케이크·쿠키 만들기 등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피플앤트'의 영무소 상품 만들기 '토토마마'의 색칠놀이·휴닝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성에서 재배된 토마토와 사과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샐러드, 감정, 떡볶이 만들기 등 요리 체험도 방문객의 발길을 모았다. 동신대학교 학생들과 드림빌 부부 기타동아리 꿈동 등이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우기도 했다. 장성군은 앞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 참여 행사에 대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